



2017년 4월중 부산지역 신설법인 현황 조사

【 요약 】

□ 2017년 4월중 부산지역 신설법인 수 : 393개체

(전년동월의 366개체 대비 7.4% 증가, 전월의 461개체 대비 14.8% 감소)

- 4월중 부산지역 신설법인은 지난해 수출부진과 경기위축에 따른 신설법인 감소 등의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증가했으나, 전월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올해 최저치를 기록함.
- 이는 최근 전국적인 경기 회복기조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조선 및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등 주력 업종에서 수주부진과 수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을 비롯한 산업 활동 위축에 따른 고용불안과 소득감소로 창업 여력이 약화됨과 동시에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들어서면서 각종 기대심리의 발현으로 대선 이후로 창업을 늦추는 경향이 짙어진 것으로 분석됨.
- 업종별로 분석하면, 부동산 및 장비 임대업·서비스업(부동산 및 장비임대 66개체, 기타 서비스업 71개체)이 137개체(34.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유통업 84개체(21.4%), 건설업 65개체(16.5%), 제조업 50개체(12.7%), 정보통신업 20개체(5.1%), 운수업 19개체(4.8%), 기타 17개체(4.3%), 수산업 1개체(0.3%) 등의 순으로 집계
- 자본금 규모별로 분석하면 5천만원 이하가 263개체(66.9%)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52개체(13.2%), 3억원 이상 52개체(13.2%),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8개체(4.6%), 5천만원 초과 ~ 1억원 미만 8개체(2.0%) 순으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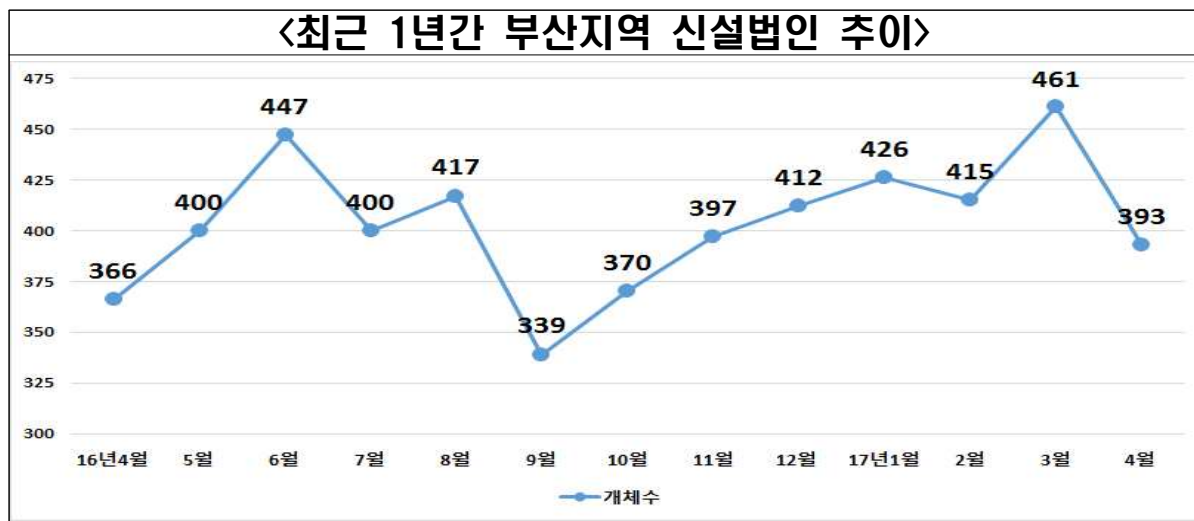
최근 1년간 부산지역 신설법인 추이



1. 신설법인 현황

□ 2017년 4월중 부산지역 신설법인 수 : 393개체

- 전년동월 366개체 대비 7.4% 증가, 전월 461개체 대비 14.8% 감소
- 2017년 4월중 부산지역 신설법인은 지난해 수출입 감소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신설법인 감소 등의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월대비로 볼 때 14.8%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올해 최저치 기록
- 이는, 최근 전국적인 수출증가를 비롯해 경제 전반의 회복기조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조선 및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 등 주력 산업에서 여전히 수주부진과 수출 감소가 지속된 가운데, 생산을 비롯한 산업 활동 위축에 따른 고용 불안과 소득감소로 창업 여력이 약화됨과 동시에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서 각종 기대심리의 발현으로 대선 이후로 창업을 늦추는 경향이 짙어진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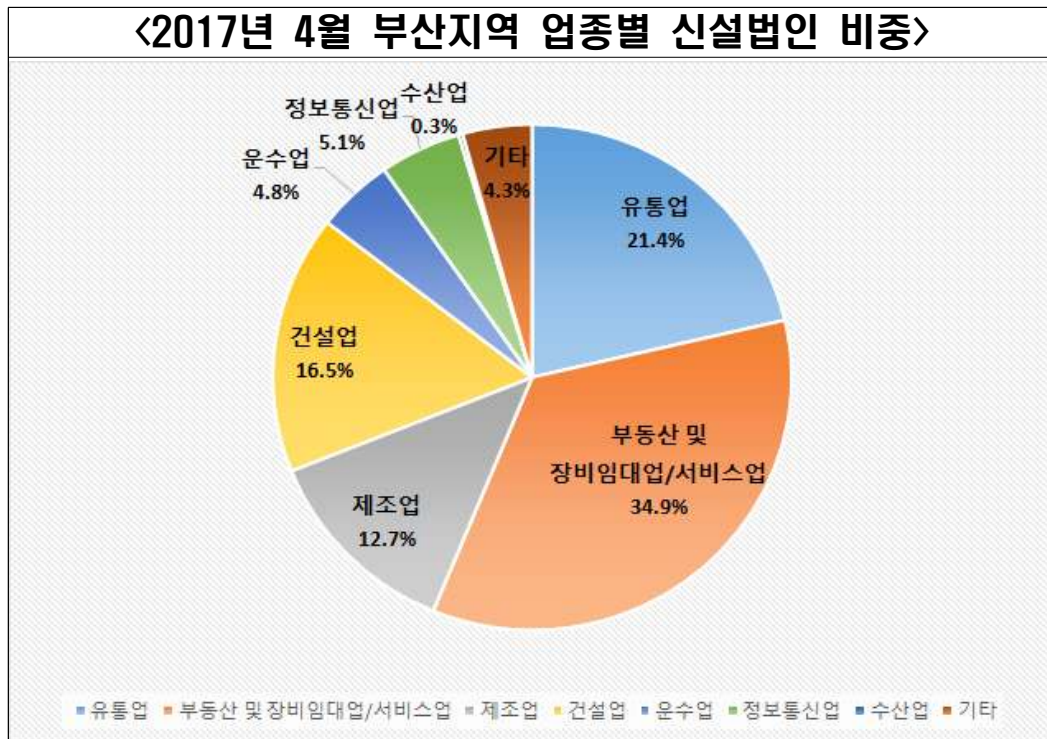
2. 업종별 현황

□ 4월중 부산지역 신설법인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유통업과 운수업에서 전년 동월대비 각각 3.4%, 9.5% 감소

- 반면, 소프트웨어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업이 150.0%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이어, 건설업 8.3% 부동산 및 장비임대업서비스업 7.9% 태양광 발전업이 포함된 기타산업에서 30.8% 증가

□ 4월중 부산지역 신설법인 393개체 중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부동산 및 장비 임대업·서비스업(부동산 및 장비임대 66개체, 기타 서비스업 71개체)이 137개체(34.9%) 가장 많았음.

- 이어 유통업 84개체(21.4%), 건설업 65개체(16.5%), 제조업 50개체(12.7%), 정보통신업 20개체 (5.1%), 운수업 19개체(4.8%), 기타 17개체(4.3%), 수산업 1개체(0.3%) 등의 순으로 집계



3. 주요업종별 세부 현황

□ 「제조업」은 50개체로 전년동월대비 보합

- 전체 제조업 신설법인은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이었으나, 세부 업종별로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산업 활동이 위축된 기계·금속·철강 분야에서 전년동월대비 20% 감소 하였으며, 특히 수주부진이 지속된 조선기자재 관련 신설법인은 2개체로 나타남.
- 반면 기계·금속·철강을 제외한 음식료품(50.0%), 섬유·가죽·신발·가방(100.0%), 화장품이 포함된 화학·고무·플라스틱(50.0%)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정보통신업」은 전년동월의 8개체 대비 12개체(150.0%) 증가한 20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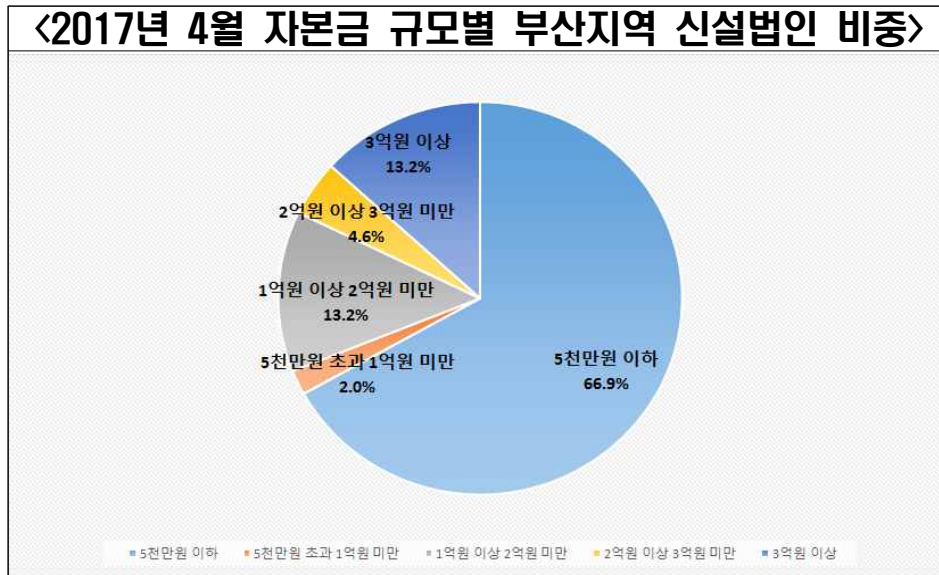
-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관련 분야의 시책과 정부지원 확대의 기대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모바일 게임 제작을 중심으로 신설법인 증가

□ 태양광 발전업 및 신재생 에너지 발전 관련 분야 신설법인 8개체, 국제회의 주선 및 여행 기획 등 MICE·관광 관련 신설법인 6개체

- 태양광 발전업 및 신재생 에너지 발전 관련 분야의 신설법인은 태양광 발전기 설치 지원을 비롯한 관련 분야의 지원 시책이 확대된 이후 창업 활성화
- 여행 주선업, PCO/PEO 등 MICE·관광 관련 분야는 '2017 봄 여행주간' 등 본격적인 관광 시즌을 앞두고 창업 증가

4. 자본금 규모별 현황

- 4월중 신설법인을 자본금 규모별로 분석하면 **5천만원 이하**가 **263개체(66.9%)**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52개체(13.2%), 3억원 이상 52개체(13.2%),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8개체(4.6%), 5천만원 초과 ~ 1억원 미만 8개체(2.0%) 순으로 집계



- 5천만원 이하 신설법인은 263개체로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및 장비임대업서비스업 113개체, 유통업 54개체, 제조업 34개체, 건설업 20개체, 정보통신업 18개체, 기타 14개체, 운수업 10개체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17년 4월중 신설법인 현황

(단위 : 개체,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륜		
			3월	4월	누계 (4월)	3월	4월 (당월)	누계 (4월)	비중	전 년 동월비	전월비	전 년 동기비
합 계			470	366	1568	461	393	1695	-	7.4	-14.8	8.1
산 업 												